

조선 중기 제화시 문화 향유와 변주*

황수정**

차례

1. 머리말
2. 시인의 소통과 제화시 문화 향유
3. 제화시의 변주
4. 맺음말

| 국문초록 |

본고는 조선 중기 제화시 문화 향유와 변주를 고찰한 것이다. 조선 중기는 목릉성세(穆陵盛世)로 역량이 뛰어난 시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한 시대이다. 여기서는 주로 간이 최립, 동악 이안눌, 오산 차천로, 서경 유근, 석주 권필 등의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소통과 공감, 제화시 문화 향유를 파악하였다. 조선 중기 제화시 문화 향유 중 큰 성과로는 탄은 이정(潭隱 李鼎)의 『삼청첩(三淸帖)』에 관한 제화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삼청첩』 제화시에는 주로 탄은이 임란에서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림을 완성하였던 바, 난과 매화, 대나무 그림의 뛰어난 고귀함을 노래하였다. 당대 시인들의 품격 있는 제화시 문화 향유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 중기 제화시의 변주를 고찰하였다. 전란(戰亂)을 경험한 조선 중기 문인사대부가에서는 가전(家傳) 시화첩을 제작하려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그 중에 임란으로 무너지고 폐허가 된 별서(別墅)인 집터를 그림으로 복원한 시화첩인 『죽촌도첩(竹村圖帖)』을 알 수 있었다. 『죽촌도첩』 제화시는 폐허가 된 집터 즉, 삶의 터전이 없어진 것에 대한 상실감과 다시 극복하고 상처받은 바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로써 제화시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실과 회복의 변주 양상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로 장편의 시에서 나타난 기이한 환상성과 일상성이 드러난 시편들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서 일상생활에서 중요시되는 기록화류 그림에 대한 제화시로서 사실적이면서도 일상성이 드러난 제화시로의 변주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핵심어 : 조선 중기, 제화시, 향유, 변주, 삼청첩, 죽촌도첩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8908).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부(고전번역전공) 강사

1. 머리말

본 연구는 조선 중기 제화시 문화 향유와 변주를 고찰한 것이다. 조선 중기는 목릉성세(穆陵盛世)로 역량이 뛰어난 시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한 시대이다. 여기서는 주로 간이 최립(崔岾, 1539~1612), 동악 이안눌(李安訥, 1571~1637), 오산 차천로(車天輅, 1556~1615), 서경 유근(柳根, 1549~1627), 석주 권필(權輶, 1569~1612) 등의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소통과 공감으로써 제화시 문화 향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동안 조선 중기 한시 연구에서는 한시의 흐름과 다양한 양상 등을 중심으로 한 고찰이 주를 이루었다.¹⁾ 이 외에도 상당한 연구 성과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제화시 관련 연구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²⁾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중기 제화시 문화 향유와 그 변주 양상에 주목하였다.

조선 중기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변고로 다양한 분야에 그 영향을 끼치곤 하였다. 즉 조선 중기는 앞선 시기의 문화적 발전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전란의 상흔을 극복하고자 하는 변화 양상들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조선 중기 제화시 문화 향유와 그 변주로는 어떤 양상들이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조선 중기 제화시 문화 향유 중 큰 성과로는 탄은 이정정의 『삼청첩(三淸帖)』에 관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 시대 뛰어난 역량을 구축한 시인들 간에 서로 소통과 공감하면서 작시활동이 이루어졌던 바가 있었기

-
- 1) 이미진, 「朝鮮中期 雜體詩 創作에 대한 研究」,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3; 임준철, 「朝鮮中期 漢詩에서의 典型 意象의 繼承과 美感의 擴充」, 『한국한문학회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215~250쪽; 지신호, 「조선 중기 한시에 나타나는 몸의 두 가지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저 14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307~328쪽; 조평환, 「朝鮮中期 婢女 月蓮의 漢詩研究」, 『溫知論叢』 第21輯, 온지학회, 2009, 71~96쪽; 이남면, 「조선 중기 배울 창작에 대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 제62집, 한국한문학회, 2016, 229~264쪽; 조혁상, 「조선중기 刀劍의 文學적 형상화에 대한 一研究」, 『조선중기 도검(刀劍)의 文學적 形상화에 대한 일연구(一研究) - 16~17세기(世紀) 초엽(初葉) 한시(漢詩)를 중심(中心)으로 -』, 『동방한문학』 75, 동방한문학회, 2018, 221~264쪽.
- 2) 구분현, 「제화시의 미학적 특징과 구현 원리」, 『동방한문학』 49, 동방한문학회, 2011, 137~167쪽; 오세현,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詩畫를 통한 교유에 관한 試論」, 『규장각』 5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 439~474쪽; 황수정, 「옥봉 백광훈의 풍류와 제화시」, 『한국시가문화연구』 53, 한국시가문화학회, 2024, 223~246쪽; 박혜영, 「조선 전기 梅花圖 題畫詩의 상징의 미 연구」, 『東洋古典研究』 第89輯, 동양고전학회, 2022, 9~41쪽.

때문이다. 동시대 활동하는 문인으로서 서로의 역량을 인정하고 공감하였던 바가 그 기저를 이루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 중기 제작된 『삼청첩』 제화시에 담긴 의미와 그 향유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로써 당대 시인들의 품격 있는 제화시 문화 향유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조선 중기 제화시의 변주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전란(戰亂)을 경험한 조선 중기 문인사대부가에서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전(家傳) 시화첩을 제작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서는 주로 조선 중기 제화시 내용적 측면에서의 변주 양상을 중점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 중기 제화시의 변주는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당대 문인들이 그림을 보는 시각과 그 내용을 제화시로써 풀어내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 시인의 소통과 제화시 문화 향유

2.1. 시인의 소통과 공감

조선 중기는 회화 애호 풍조와 감평활동(監評活動)이 확산되던 시기였다.³⁾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시인의 교감과 소통은 서로의 역량을 인정하고 함께 협업하는 제화시 문화의 기틀을 이루었다. 조선 중기에 중추적으로 시업을 달성 하였던 인물들은 격정의 시대를 함께 품미하면서 상대방의 입지와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시업에 매진하면서 조선 중기 한시 흐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인물들이다. 따라서 제화시 향유 문화의 측면에서도 조선 초기 못지않게 더욱 활발한 양상을 보이며 전개됨을 짐작할 수 있다.

陸沈霜髮意如何	문혀 살며 백발이 나니 뜻이 어떠한가
長夜空吟白石歌	긴긴 밤에 속절없이 백석가를 읊조리네.
四海窮途悲涕泗	사해에 길이 끊겨 슬퍼 눈물이 쏟아지고
七年浮世厭干戈	칠 년의 덧없는 세상 전쟁에 염증이 나네.

3) 맹영일, 「간이 최립의 화론 연구」, 『東洋學』 第50輯,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1, 3쪽.

後凋子已依松柏	후조하는 송백에 그대는 이미 의지하고
初服吾將製芰荷	초복으로 기하를 나는 장차 지으려 하네.
莫遣音書長寂寞	소식을 오랫동안 적막하게 하지 말라
江湖秋鴈近來多 ⁴⁾	강호에는 가을 기러기가 근래에 많다네.

이 작품은 석주 권필이 오산 차천로에 대하여 쓴 것이다. 오산은 화담 서경덕의 문인이다. 자는 복원(復元)이며,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오산은 당시 특히, 시에 뛰어나 글씨의 한호, 산문의 최립과 더불어 송도삼절(松都三絶)로 일컬어졌다. 『소화시평(小華詩評)』에서 오산의 장편대작은 “도도하게 흘러 마르지 않는 강물과 같다.”⁵⁾라는 평가를 하였다. 이 작품에서 석주는 오산이 재주에 비하여 여러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다시 나라에 쓰임을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물론 오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어도 그의 능력이 다시 잘 쓰이기를 담은 것이다. 이는 긴 밤에 백석가(白石歌)를 읊조린다는 표현으로 춘추시대 영척(甯戚)이 제 환공의 쓰임을 받기 위해 불렀던 노래를 소환하였다. 또한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곤궁 앞에 찢긴 세월을 보내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석주 자신은 이미 벼슬과는 거리가 먼 은자와 같은 생활이라면,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라는 『논어(論語)』의 내용을 차용하면서 오산의 문명(文名)이 강건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오산 또한 석주에게 보내는 시, <기석주(寄石洲)>에서 “술잔 놓고 글 논하니 외롭게 손잡다가, 풀에 앉아 꽃을 보니 다시금 한스럽네[對酒論文孤執手, 看花藉草恨廻腸].”⁶⁾라고 하며 서로의 애뜻한 정을 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석주가 찾아와서 술상을 차려놓고 지은 시[權汝章見訪命尊賦詩]에서는 “서로 만나 취하여 천진을 터놓으니, 이 지역의 경관이 신흥을 자아내네[相逢一醉對吾眞, 此地風光發興新].”⁷⁾라고 하며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진심으로 대하니 주변 경관

4) 권필, 『석주집』 제4권, <寄車五山>, 한국문집총간 75,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본고의 한시문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자가 수정하였음)

5) 홍만중, 안대회 역주, 『小華詩評』, 국학자료원, 1995, 256~257쪽.

6) 차천로, 『五山集』 卷之三, <寄石洲>, 한국문집총간 61, 한국고전번역원, “一水牽愁隔兩鄉。春雲入眼更茫茫。夢隨明月青山盡。心送寒潮碧海長。對酒論文孤執手。看花藉草恨廻腸。祗緣王事催歸路。安道門前失棹將。”

7) 차천로, 『五山集』 卷之三, “相逢一醉對吾眞, 此地風光發興新。極目海雲遙隔日, 喚愁江草暗生

도 새로운 흥취를 자아내는 듯하다고 그리고 있다. 이처럼 석주와 오산은 당대 거의 동년배로서 두 사람 사이의 심금과 시적 역량으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처지를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西漢先秦筆不亡	서한 선진 필단이 없어지지 않은지라
雄文顯噩較誰長	문장 솜씨 뽑내어 광박 웅대 겨루었네.
風翻學海搏鵬鳥	학해에 바람 불자 봉새가 솟구치고
雲纈詞林舞鳳凰	사림에 구름 일자 봉황이 춤추었네.
會向燕臺酬駿骨	연대로 모여들어 준골에 응모하니
休從裸壤表龍章	나양에서 용장을 자랑하지 말지어다.
最知道屈名逾重	뜻 못 펴도 명망은 갈수록 증해지니
山斗爭瞻簡易堂 ⁸⁾	간이당을 태산과 북두처럼 다투어 우러르네.

이 작품은 오산이 간이 칩립에 관계된 상황을 시화(詩畫)한 것이다. 간이는 울곡 이이의 문인이다. 본관은 개성(開城), 자는 입지(立之), 또 다른 호는 동고(東阜)이다. 간이는 국내외에서 문장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다. 많은 제시문을 쓰기도 하였다.⁹⁾ 많은 문사들이 문장으로 당대 이름 난 간이에게 자신이 소장한 그림 관련해서 제시문을 받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이¹⁰⁾의 명망은 오산이 이 작품을 쓰면서 시 제목에도 그 내용을 담고 있다.

간이 칩립이 평양에 거거할 때 초당의 편액을 ‘간이(簡易)’로 하면서 명나라 사신 고천준(顧天俊)의 빈접사(賓接使)로 월사 이정구, 연위사(延慰使)로 지봉 이수광, 그리고 동약 이안눌 등은 종사관(從事官), 오산 차천로, 현성 김남창, 석주 권필은 제술관(製述官)으로 평양에 모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일대의 문장대가로 이때 간이당에 대한 시를 짓게 된 계기를 기록한 것이다. 이처

春. 離懷剛倚詩揮筆, 壯氣還憐劍吼塵. 合散世中天不管, 秖應長嘯送昏晨.”

8) 차천로, 『五山集』 卷之三, <崔東阜 岵 寓居箕城 構草堂 扁以簡易 萬曆辛丑 李月沙 廷龜 爲華使 顧天俊 賓接 李芝峯 晔光 爲延慰 朴南郭 東說, 李東岳 安訥, 洪鶴谷 瑞鳳 爲從事官 余與金南窓 玄成, 權石洲 鞞 爲製述官 來會箕城. 皆一時文章巨公也 有簡易堂酬唱詩>.

9) 최립, 『간이당집』 제3권, <狼子山圖 詩序>, <三清帖序>, <山水屏序>, <權信川 詞 慶筵圖序>, <申同樞慶壽圖詩序>, <寧郡試院題名圖識>, <載寧郡試院題名圖識>, <承文院契會圖識>, <李鵝溪題詩山水圖識>, <河大而畫竹識> 二幅, <錦溪守所有山水圖識>

10) 최립 또한 오산의 인생 역정 회로예락을 칠언율시 12수로 묘사한 작품이 두 사람 간의 친밀함이 특히 잘 드러난다. 『간이집』 제7권, 松都錄, <次車五山韻. 通 十二首>에서 참조할 수 있다.

럼 조선 중기 문인으로서 함께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하고 드높이는 바를 알 수 있다.

여기에 오산도 간의의 실력을 봉새가 솟구치고[搏鵬鳥], 봉황이 춤추었네[舞鳳凰]라고 표현하였다. 이렇듯 당대 간의의 명망은 많은 문객들이 크게 인정하는 바였다. 오산은 특히 미련에서 벼슬로서의 뜻은 펼치지 못했어도 그 명망은 더해질 것임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간의 최립의 명망이 태산복두처럼 빛나고 우리를 것을 말하였다.

天下奇才合濟時	천하의 인재들이 함께 세상 구제할 때
江湖落魄少相知	강호에 영락해 있으니 아는 사람 적네.
未將長策干明主	긴 계책 아직 임금께 올리지 못했으니
誰料新恩賴小詩	새로운 은혜 짧은 시 때문인 줄 누가 헤아리리.
却遣陳蕃容下榻	불현 듯 陳蕃에게 걸상 내리는 걸 용납하시고
向來袁粲嘆披帷	이전에 袁粲이 휘장을 걷었음을 탄식하였네.
白衣從事人俱羨	백의종사는 사람들이 모두 선망하는 것
幕府紅蓮媚綠池 ¹¹⁾	막부의 붉은 연꽃이 푸른 연못에 아름다움 더하네.

이 작품은 동악 이안눌이 석주 권필에게 준 시이다. 동악의 증조부는 행(荇)이다. 동악은 일찍이 시 짓는 일에 주력하였다. 동악은 18세에 진사시에 수석하였으나, 동료의 모함 등으로 이후에 출사하지 않고 문학에만 열중하게 되었다. 이후 뒤늦게 문과에 급제 후 예조, 형조 좌랑, 단천 군수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동악은 백의종사로 제술관의 역할을 맡았던 석주의 능력을 기리고 있다. 더욱이 동악 자신은 제술관으로 함께 하였기에 서로 공감했던 바가 더욱 많았을 것이다. 이처럼 조선 중기에 증추적으로 시업을 달성하였던 인물들은 격정의 시대를 함께 풍미하면서 상대방의 입지와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시업에 매진하면서 조선 중기 한시 흐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인물들이다.

2.2. 제화시 문화 향유 면모

조선 초기에 안건의 <몽유도원도>가 있었다면 조선 중기 대표적인 시화첩으

11) 이안눌, 『東岳先生集』 卷之三, <次東臯崔令公韻 贈權汝章>, 한국문집총간 78, 한국고전번역원.

로는 『삼청첩』을 들 수 있다. 『삼청첩』은 탄은 이정 개인의 작품을 넘어 조선 중기 문예의 지향과 역량이 한 자리에 모인 종합예술품이다.¹²⁾ 『삼청첩』은 대나무, 난, 매화를 그린 이정의 그림으로 임진왜란 속에서 세 가지의 맑은 기상을 담은 식물을 그려서 제서를 포함한 시화첩이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주로 『삼청첩』 회화의 양식적 접근과 역사성에 초점을 둔 논저가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서는 회화와 관련한 제화시에 관심을 두면서 제화시 향유의 면모를 밝히고자 한다. 탄은 이정은 당대 이미 자신의 그림이 일정 경지에 올라서 그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화가¹³⁾이다. 본장에서는 이정의 역량을 돌아보고 함께 공동 작업한 시인의 문학적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

三年此會干戈後	병란 겪고 삼 년 만에 서로 만난 우리 모임
一卷仍將瓊珠留	완연처럼 그림 한 권 그래도 남겨 두셨네.
造物全君幾折臂	부러질 뻔 한 그대의 팔뚝 조물이 보호해 준 덕에
餘生及我未昏眸	만년의 나의 눈동자도 흐리지 않게 되었네.
清香豈取供花事	공화에서 맑은 향기 어찌 취할 수 있겠소만
苦節應憐與雪謀	눈발 속의 굳센 절조 어찌면 그리 어여쁘지.
久識傳神推妙絕	흔을 붙여넣는 그림 솜씨야 예전부터 아오마는
詩篇字法又風流 ¹⁴⁾	시편과 서법(書法) 역시 풍류가 넘쳐나네.

이 시는 간이 최립이 『삼청첩』에 대한 서문을 쓴 후 다시 제화시를 창작함으로써 시화첩으로의 의미를 더하고 있는 작품이다. 7언율시로 화가와 시인의 친밀도가 잘 드러났다. 그림의 전후 사정과 화법의 빼어남과 함께 시편, 그리고

12) 백인삼, 「간송미술관 소장 『삼청첩』의 역사성에 대한 고찰」, 『헤리티지:역사와과학』 46, 국립문물화재연구원, 2013, 202쪽.

13) 조선 중기 종실(宗室) 출신 화가 탄은(灘隱) 이정(李鏗, 1554~1626)은 석양군(石陽君)으로 시·서·화에 능하고, 특히 묵죽화(墨竹畫)에 뛰어나 명성을 떨쳤다. 『삼청첩』은 1594년 12월 12일 충남 공주에서 그린 그림이다. 총 1첩의 54면으로 구성된 서화첩(書畫帖)이다. 제시문으로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차천로, 유근, 이안눌, 이덕은 등이 있다. 이들의 제문은 문헌상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합본되어 있지 않다. 최립의 서문, 차천로의 題詩가 장첩되어 있다. 탄은 사후에 유전되는 과정에서 기록한 윤신지와 송시열의 跋文이 남아있다(李慈賢, 「탄은 이정의 회화세계 연구-『삼청첩』을 중심으로」, 수원대 석사학위논문, 2021, 61쪽 참조) 현재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14) 최립, 『간이집』 제6권, <題石陽正見留三淸帖以還 蘭梅竹 詳序文>, 한국문집총간 49, 한국고전번역원.

서법의 미감까지 아울러서 평한 제화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수련을 보면, 병란 후 다시 만난 감회를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전란의 굴곡진 상황 속에서도 작품을 남겼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그림 한 권이 마치 완연처럼 주나라 묘당의 보옥처럼 귀함을 드러내고 있다. 함련에서는 병란의 질곡 속에서 위험에 처하여 몸이 상할 뻔한 부분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다시 훌륭한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을 그려낸 것이다. 이를 간이는 서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지난해에 전란의 와중에서 우리 모두 조수(鳥獸)처럼 뿔뿔이 흩어져 피난했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이중섭만은 적의 칼날을 피하지 못해 팔이 거의 떨어져 나갔다가 겨우 잇게 되는 운명에 처하였다. 그 뒤에 언젠가 행조(行朝)에서 한번 만난 적도 있었지만 그때에는 서로 생사(生死)를 묻고 위로하는 말을 건넬 수 있었을 뿐 작품에 대해서는 물어볼 여유가 아예 없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도성(都城)에서 잠깐 모이게 된 자리에서, 옛적의 작품 가운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서로 탄식들을 하자, 이중섭이 보따리 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어 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부상당한 팔을 치료받은 뒤에 그린 대나무와 난초와 매화 그림들이었다.¹⁵⁾

이처럼 위험했던 상황을 잘 모면한 후 다시 그림 작업에 충실할 수 있었던 탄은의 노고를 읽을 수 있다. 생사의 기로에서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살아서 만나 안부를 물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작품에 대해서는 감히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런 극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품을 이루어 낸 탄은의 열정에 감복한 내용이다. 경련에서는 탄은의 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그리고 있다. 종이 속의 난초와 매화의 향기를 취할 수는 없지만, 눈발 속에 보이는 대나무의 기품은 굳센 절조(苦節)라 표현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시화첩의 조화로움을 언급하고 있다. 즉 탄은의 그림 솜씨야 익히 알고 있지만, 작품집 속의 시편과 서법의 어우러짐에 풍류(風流)가 잘 담겨 있음을 그려냈다. 이로써 『삼청첩』의 시화첩으로서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다.

15) 頃歲兵戈中鳥獸窟 相失苟活 仲變不免鋒刃 臂幾折而續 嘗相遇於行朝 勞問死生外 不暇叩所有 今復暫聚都下 相與咨嗟 曠昔所爲 無一存者 而仲變從囊中出此卷 乃續臂後所爲竹若蘭若梅也.

公子前身楚屈平	이공자의 전신은 초나라 굴원이니
至今猶愛石蘭馨	지금까지 여전히 석란의 향기를 사랑하네.
蒨藜滿地花偏紫	남가새 땅에 가득한데 꽃은 유독 붉고
鸚鵡鳴秋葉尚青	올빼미 우는 가을에 잎은 오히려 푸르네.
卽見濡毫輸畫記	즉시 보고 붓을 적서 그림에 대한 글을 보내고
因思結佩着騷經	인하여 난초 차고 이소 불 생각을 하네.
傷時願爲援琴鼓	시절이 슬퍼 거문고 당겨 연주하고 싶으나
古操無人試一聆 ¹⁶⁾	옛 가락 들어보려는 사람조차 없네.

이 작품은 동악이 『삼청첩』의 그림 중 난(蘭)에 대해 쓴 제화시 두 번째 수이다. 동악은 『삼청첩』에 대하여 모두 4수의 작품을 남겼다. 또한 시제에 『삼청첩』이 화첩에서 시화첩으로 묶이는 과정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즉 유근이 근체시 한수를 먼저 짓고, 간이 최립이 발문을 쓴 것을 밝혔다. 그리고 뒤이어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문사들이 서로 화답하여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였다고 쓰고 있다. 자신에게도 시를 청하기에 써서 드린다고 밝혔다.

이 시는 탄은 이정의 난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나머지 매화와 대나무도 각각 제화시 2편을 지었다. 여기서는 난에 해당하는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악은 탄은을 초나라 굴원에 비유하고 있다. ‘석란향(石蘭馨)’은 굴원이 은거 때 지은 <산귀(山鬼)>라는 작품 속에 석란 옷을 입고 두형의 띠를 두르고[被石蘭兮帶杜衡]에서 차용한 듯하다. 굴원의 아름다운 작품 결을 이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수련에서 석란의 향으로 후각적인 감각을 불러일으켰다면, 함련에서는 탄은 이정 난 그림을 시각적으로 묘사하였다. 모래밭 남가새 풀 가득한 곳에 꽃의 유독 붉은 색감과 가을 나뭇잎인데도 오히려 푸르른 생명력을 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동악이 그림을 보고 그 자리에서 시를 써서 보낼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다. 난 그림의 생명력을 시에도 후각과 시각 등 감각을 살려 표현하였다.

千古湘妃淚不乾 천고토록 아황과 여영의 눈물 마르지 않으니

16) 이안눌, 『東岳先生集』卷之六, 端州錄 32, <石陽正手畫蘭梅竹爲一卷 號曰三清帖 西峴柳相公首題近體詩一篇 東臯崔相公跋其尾 一代交游之士 相與繼和 以贊其美 因示余求詩 遂書此以奉> 4首 중 두 번째 首 蘭.

至今遺恨在齊紈	지금까지 남은 한이 고운 비단에 있네.
龍根帶石金筋怒	용의 뿌리 돌에 서려 죽순으로 솟아나고
鳳節停霜玉骨寒	봉황 마디에 서리 머물러 옥골이 차갑네.
風韻却疑生律呂	바람 불자 음률인가 문득 생각했더니
天陰最覺濕琅玕	어둑해지니 대나무가 가장 축축한 것을 깨달았네.
若教着得玄冥雪	만약 하늘에서 눈이 내려왔는다면
氣色精神寫轉難 ¹⁷⁾	기색과 정신은 그려내기 더욱 어려워리.

이 작품은 오산 차천로가 지은 석양정의 『삼청첩』 관련 시 중 대나무 그림 [畫竹]에 대한 것이다. 수련에서는 상비라 하여 아황과 여영의 소상반죽(瀟湘斑竹) 고사를 차용하였다. 아황과 여영의 고결한 한이 깃든 절개의 미가 고운 비단에 스며든 것으로 탄은 이정의 그림 솜씨를 찬하고 있다. 오산은 탄은의 대나무 그림에 나타난 기상을 함련에 담아냈다. 즉 용근(龍根)이라 하여 용의 뿌리가 돌에 서려 죽순으로 솟아난 듯하고 봉황의 마디에 서리가 머문 듯 대나무의 서늘한 기상을 묘사하였다. 또한 경련에서는 바람이 불자 대나무가 흔들리며 마치 음률처럼 소리를 내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탄은의 그림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의 소리를 음률로 시에 담아서 생동감을 싣고 있다. 시각적인 활동인 그림보기는 오산의 이 제화시를 통해 청각적 요소가 덧붙여져 더욱 입체적인 제화시로 향유할 수 있다.

아래 작품은 오산이 석양정의 『삼청첩』 제작경위에서 밝힌 대로 서경 유근이 쓴 시이다. 유근의 본관은 전주, 자는 회부(晦夫), 호는 서경(西峒)이다. 지천 황정욱의 문인이다. 이 시에서 서경은 탄은에게서 이미 열 폭의 비단에 대나무를 그림을 받은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삼청첩』 시화첩의 자신의 작품 한 수를 더하였다. 유근은 이 시에서 탄은의 기상과 풍류로 시상을 일으키고 있다. 종영(宗英)은 종실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탄은을 일컫는다. 유근은 삼청 그림을 황금처럼 빛난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백설곡(白雪曲)>처럼 고상한 시들과 어우러져서 보배로운 하나의 첩이라 하였다. <백설곡>은 고상한 악곡을 말한다. 훌륭한 그림에 고상한 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것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임란 속에서 오른 팔을 크게 다쳤으나, 강한 의지로 극복하여 흘

17) 차천로, 『삼청첩』 화죽, 간송미술관 소장본 참조.

로 정신을 가다듬어 조화의 솜씨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또한 간이 등의 시문은 ‘빙파도(騁波濤)’라 하여 파도처럼 거침없는 유려한 작품을 이룬 것을 말하고 있다.

有美宗英氣象豪	아름다운 종영은 기상도 호방하고
風流儒雅亦吾曹	풍류도 선비다워 또한 우리의 무리네.
三清寶帖黃金爛	보배로운 『삼청첩』 황금처럼 빛나고
一唱新詞白雪高	새로 지은 시는 <백설곡>처럼 고상하네.
獨把精神移造化	홀로 정신을 가다듬어 조화의 솜씨 옮겼는데
誰將文字騁波濤	누가 문자를 파도처럼 내달렸나.
老夫從此堪醫俗	노부도 이제부터 속태를 고칠 수 있으니
十幅霜紈運彩毫 ¹⁸⁾	열 폭 비단에 채색 붓 움직였네.

이처럼 탄은 이정의 『삼청첩』은 난과 매화, 그리고 대나무 그림, 그리고 그에 대한 제화시문이 어우러진 시화첩이다. 탄은을 비롯해서 당대 명망 있는 문사들의 협업을 통한 작품집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그 제화시편들을 보면 당대 뛰어난 화가가 고난 속에서 이루어낸 그림에 대한 칭송은 물론이고 함께 작업한 시편들에 대한 풍류와 아취에도 공감하며 향유하고 있다. 특히 간의의 제화시에서는 혼을 불어넣은 그림 솜씨야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함께 어우러진 시편과 서법에도 풍류가 넘쳐흐른다고 하였다. 또한 유근의 시에서는 홀로 정신을 가다듬어 조화의 솜씨를 옮겼는데, ‘누가 문자를 파도처럼 내달렸나’라고 표현하면서 탄은의 그림과 이름 난 문사들의 시편들을 함께 높이고 있다. 그리고 동악의 시에서는 시·청각 및 후각적인 감각을 모두 동원한 시편으로 제화시의 감각적 요소를 더하였다. 거기에 오산의 제화시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대나무의 모습에 읊물을 더하면서 화가와 시인의 협업으로 제화시는 공동의 미적 문화로 향유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중추부 경력(中樞府經歷) 허진(許震)은 80세의 나이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폐허가 된 자신의 별서 집터를 회상하면서 <죽촌도(竹村圖)>를 제작하였다. 여기에 최립,¹⁹⁾ 이안눌,²⁰⁾ 차천로,²¹⁾ 유근²²⁾ 등의 시문을 받아 시화첩으

18) 유근, 『西峯詩集』 卷之三, <題石陽正畫竹帖. 面有崔簡易序文. 我有十幅生紈. 宗英爲我寫竹以惠. 故并及之>, 한국문집총간 57, 한국고전번역원.

로 만들었다. 이는 제화시가 그림 감상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상실과 회복, 기억과 회상, 염원과 기원을 담아서 길이 유전(遺傳)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다. 기존의 그림 감상에 대한 제화시 제작의도에서 변화 및 확장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 중기 제화시 문화의 변주 양상으로 어떻게 표출되는지 다음 장에 이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제화시의 변주

3.1. 상실과 회복

조선 중기에는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의 상흔이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쳤다. 즉 사대부들의 삶에서 많은 것을 앗아간 시기였다. 이러한 전란을 경험한 사족가에서는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선조의 유업들이 또다시 병화(兵火)로 분실되거나 흩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들을 모아 가전(家傳) 시화첩으로 제작하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²³⁾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 조선 중기 왕성한 작시 활동을 하였던 인물들이 시화첩 제작에도 동참하였다. 이로써 그 제화시에 나타난 상실과 회복의 변주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임진년의 병란으로 촌락이 폐허가 되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참담하게 남은 것이 없어 옛 가업이 모두 흩어져 버려서 수습할 도리가 없었다. 물고기와 새,

-
- 19) 최립, 『간이집』 제7권, 麻浦錄, <次韻許經歷 震 竹村圖卷>, “蕭然舊業逐風塵, 不復煙霞可着身. 猶喚竹村疑是夢, 欲修茅棟奈何貧. 餘年下策丹青似, 一代高詞翰墨親. 堪媿鄙人營度拙, 向來無假也無真.”
- 20) 이안눌, 『東岳先生集』 卷之二十二, 拾遺錄上, <奉次許經歷竹村圖詩韻>, “眼看滄海幾揚塵, 八十年來吏隱身. 巴子別區專地勝, 許丞廉節任家貧. 風煙却逐兵戈改, 粉墨偏承警效親. 莫認竹林輪幻境, 幽情終保一般真.”
- 21) 차전료, 『五山先生續集』 卷之二, <竹邨圖. 次諸公韻>, “勞生到骨是縑塵, 別業惟應蚤乞身. 日月在天空送老, 雲霞滿地不憂貧. 夢驚蝸角山河改, 畫入鯤丘草木親. 咫尺秦餘移恍惚, 却疑舟子此尋真.”
- 22) 유근, 『西垞詩集』 卷之三, <題許經歷 震 竹村圖詩帖>, “種竹成村迹已陳, 畫中安得著閑身. 詩篇到此渾無興, 花鳥如今亦棄貧. 夢罷却知形是幻, 月明唯許影相親. 太平何日同歸去, 谷口時時訪子真.”
- 23) 조규희, 『조선시대의 산거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38~40쪽.

구름과 안개는 꿈을 꾀 봐도 헛수고일 뿐이라 회상하여 (그림으로) 그리고 시로써 감회를 기록하였다...²⁴⁾

眼看滄海幾揚塵	지금껏 창해에 몇 번이나 흙먼지 일었는가
八十年來吏隱身	80년이 넘게 관직에 몸을 숨겼네.
巴子別區專地勝	외진 지역이나 땅은 볼만하고
許丞廉節任家貧	허경력의 청렴과 절개 집이 가난하건 말건
風煙却逐兵戈改	산천의 모습 병란 따라 변했으나
粉墨偏承警效親	시화의 능력이야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었네.
莫認竹林輪幻境	죽림이 요지경이 되었다 생각하지 마소
幽情終保一般眞 ²⁵⁾	그윽한 마음 끝내 보존하니 똑같이 진실하다네.

앞의 인용문은 동악이 쓴 <죽촌도>²⁶⁾ 제작배경에 관한 기록 중 일부이다. 여기에는 전란 중 폐허가 된 마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이를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참담한 심정을 알 수 있다. 촌락이 폐허가 되어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남은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옛 집의 모습이 모두 부서지고 흩어진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도저히 수습할 도리가 없는 깊은 상실감을 나타내고 있다. 예전에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주변 자연의 모습을 돌이키기 어려웠다. 그래서 추억으로 회상하여 그려내어, 이를 시로써 그 감회를 기록한다는 말을 담았다. 다음 시는 동악이 쓴 <죽촌도> 제화시이다.

병화(兵火)로 온 나라에 휘몰아쳤던 흙먼지를 상기시킨다. 그 속에서 견딘 팔십 평생을 관리로 살아온 <죽촌도> 주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허진의 청렴과 절개를 부각시키고 있다. 동악은 비록 산천의 모습은 전란으로 옛 모습을 잃었으나 다시 옛 집을 그림으로 추억하여 상실감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시로써 위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옛 집의 모습을 시화첩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격려한 것이다. 이는 죽림이 모두 부서졌다 생각지 말라고 한

24) 이안눌, 『東岳先生集』 卷之二十二, 拾遺錄 上, “...壬辰兵燹 里落成墟 一草一木 慘然無餘 舊業板蕩 收拾無計 魚鳥雲煙 夢想徒勞 追畫作圖 詩以志感...”

25) 이안눌, 『東岳先生集』 卷之二十二, 拾遺錄 上, <奉次許經歷竹村圖詩韻>.

26) 추억과 회상을 통해서 무너지고 폐허가 된 별서인 집터를 그림으로 복원하여 시화첩으로 만들려고 했던 『죽촌도첩』을 들 수 있다. 허진(許震, 1528~?)이라는 인물은 전란으로 없어진 집터를 회상하고 기억하고자 시화첩을 구상하고 <죽촌도> 그림이 이루어졌다.

다. 비록 현실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그림으로써 다시 옛 집의 모습을 보존하고 시로써 그 마음을 지켜내려는 마음을 잘 그려냈다. 이로써 자신의 자취를 잃어버린 상실감과 이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격려하는 시편의 내용으로 위로하고 있다.

蕭然舊業逐風塵	전란 통에 옛 동산이 쓸쓸하게 변한 뒤로
不復煙霞可着身	안개와 노을 접할 기회 다시는 없었네.
猶喚竹村疑是夢	죽촌도를 떠올리면 꿈인 듯한데
欲修茅棟奈何貧	초막을 수선하려 해도 가난한 걸 어찌하오.
餘年下策丹青似	여생의 서투른 계획이야 단청수 같아
一代高詞翰墨親	한문을 늘 베푸시는 당대의 문장에 비기리까.
堪媿鄙人營度拙	부끄럽게도 못한 이 몸 세상살이 졸렬해
向來無假也無眞 ²⁷⁾	여지껏 속인도 못 되고 신선도 못 되었네.

勞生到骨是縑塵	고달픈 삶에 뺏속까지 속진에 몰드니
別業惟應乞身	일찌감치 사직하고 별장으로 가야겠네.
日月在天空送老	하늘의 일월 따라 속절없이 늙어가도
雲霞滿地不憂貧	대지에 운하 가득해 가난을 걱정하지 않네.
夢驚蝸角山河改	와각 산하 변하여 꿈속에서 놀랐다가
畫入鯤丘草木親	낮익은 곤구의 초목이 그림에 들어왔네.
咫尺秦餘移恍惚	눈앞에서 진여가 황홀하게 그려지니
却疑舟子此尋眞 ²⁸⁾	어부가 여기서 진경 찾나 의심했지.

위의 첫 번째 작품은 간이의 <죽촌도>에 대한 시이다. 간이 역시 전란 속에 폐허가 된 마을을 상기시키고 있다. 풍진의 세상 속에 옛 동산의 자취는 찾을 수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안개와 노을마저도 자취를 감춘 듯 허물어진 옛 모습에 대한 상실감을 표하고 있다. 옛 마을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주인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면서 다시 복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림 속의 죽촌과 같은 곳에 돌아가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비친다. 현실은 폐허가 된 곳이지만 다시 아름다웠던 옛 고향 같은 곳을 그리워하고 있다. 비록

27) 최립, 『간이집』 제7권, 麻浦錄, <次韻許經歷 震 竹村圖卷>.

28) 차천로, 『五山先生續集』 卷之二, <竹邨圖 次諸公韻>.

그림 속의 집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죽촌도> 주인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있다. 자신의 삶 또한 평생을 문장을 대하면서 사느라 속인도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신선도 못 된 채 범상한 삶을 이어 가노라고 하고 있다. 이는 <죽촌도> 주인이 잃어버린 터전을 추억으로 회상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에 공감하면서 격변의 시대 고뇌를 담았다.

다음 두 번째 작품은 오산의 시이다. <죽촌도> 그림을 진경에 비유하고 있다. 먼저 수련에서는 고달픈 삶에서 벼슬을 사직하고 별서로 가고자 했던 <죽촌도> 주인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다. 80세의 나이에 돌아가고자 했던 거처가 없어진 것에 대한 상실감을 위로하고 있다. 세월의 변화에 따라 속절없이 나이 들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자 했던 곳은 구름과 노을이 가득한 곳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란으로 인해 온 세상이 변하고 무너져서 놀란 마음이었는데, 그림 속으로 낮익은 곤구의 초목이 들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죽촌의 옛 모습이 그림으로 그대로 재현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로써 부서지고 무너진 폐허 속의 별서는 어느 순간 그림 속에서 진경의 모습으로 어부가 찾아들어갔던 도화원의 모습으로 재탄생되었음을 그려내고 있다.

이 외에도 유근의 작품²⁹⁾과 윤두수의 작품³⁰⁾에서도 옛 집이 소실되고 없어져서 상심한 마음과 예전의 죽촌 마을로 가고 싶은 마음을 묘사한 바가 있다. 이처럼 폐허가 된 집터의 옛 모습을 회상한 그림에 제화시는 그 상실감을 회복 시키고자 한 마음을 덧보탠 것이다. 기존에는 그림감상 및 화가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죽촌도첩』에 담긴 제화시는 그림의 제작배경 및 그 의도에 집중하여 임란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상흔에 대한 상실감과 그 회복의 의지를 담고자 했다는 점에서 변주의 양상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즉 누구의 그림이 아니라 왜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공감과 향후 상처에 대한 치유와 안정에 더욱 의미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9) 유근, 『西峴詩集』卷之三, <題許經歷震竹村圖詩帖>, “種竹成村迹已陳, 畫中安得著閑身. 詩篇到此渾無興, 花鳥如今亦棄貧. 夢罷却知形是幻, 月明唯許影相親. 太平何日同歸去, 谷口時時訪子真.”

30) 윤두수, 『梧陰遺稿』卷之二, <次許丹陽震竹村圖帖韻>, “地接投金已出塵, 占專一壑實藏身. 清閑分外天乎借, 常事由來土也貧. 曲突徒薪無善策, 假花殘草及躬親. 不堪瓦礫魂傷後, 舊境難忘描得真.”

3.2. 환상성과 일상성

조선 중기의 한시는 배울 창작이 증가하고 장편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 중기는 목릉성세의 시단으로 한시 창작 역량의 과시와 경쟁으로 인하여 한시의 장편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오산은 당시 장편 배울로 널리 회자되었다.³¹⁾ 조선 중기에는 오산이 30운 이상의 장편 배울을 60여 편³²⁾ 지으면서 한시의 기량을 드러냈다. 조선 중기 당풍의 한시 흐름 속에서도 장편의 시가 많이 쓰였던 점을 고려할 때 제화시 측면에서도 고시와 배울의 형식으로 장편의 시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제화시의 장편화 경향은 작가의 역량뿐만 아니라 조선 중기 시대적 변고인 임란의 상처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즉 전란의 상흔이 표현된 그림에 시인도 화면(畫面)의 내용보다는 화의(畫意) 표현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제화시에 서정적 표현보다는 일상성을 담으면서 형식적으로도 서술식으로 장편화 경향을 띠게 된 것이다. 이는 제화시 문화 향유의 또 하나의 변주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제화시가 기이한 환상성 또는 생활 밀착형인 일상성을 갖춘 작품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

鱗甲欲動牙爪奪	생동하는 비늘에다 이빨 발톱 흡사하고
天骨開張毛鬣豎	기골이 벌어지고 터럭이 곤두섰지.
角掙戟兮尾拽風	뿔 세우자 꼬리에 바람이 일어나고
噓氣疑成雲片縷	입김을 내뿜으면 실 같은 구름이 일어났지.
眼如雷兮腋挾乙	번개의 눈에다 겨드랑이에 호위를 끼고
嘯起長風欲吼怒	노기를 뿜어대면 긴 바람이 일어났지.
神姿如入葉公室	섬공 방에 들어간 신령스러운 자태인 듯
白日蜿蜒頭闔戶	대낮에 머리를 창가에 드러냈지.

...

誰知粉墨形似間	누 알겠나 핏진한 묵화의 사이에
自有神靈若威武	저절로 신령 있어 위풍이 서린 것을.

31) 이남면, 「조선 중기 배울 창작에 대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 제62집, 한국한문학회, 2016, 232~236쪽 참조.

32) 이남면, 「조선 중기 배울 창작에 대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 제62집, 한국한문학회, 2016, 237쪽.

倚劔摩挲一長歎 칼 기대고 만지면서 장탄식 한 번 하니
 山出箕風海飛雨³³⁾ 산에는 바람 불고 바다에는 비 내렸지.

이 시는 석봉 한호가 소장한 용과 호랑이가 그려진 병풍에 쓴 작품이다. 우선 영험한 동물인 용과 호랑이 그림에 오산은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누구의 그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대 최고의 글씨로 인정받고 있었던 석봉이 소장한 그림이라면 나름의 의미를 갖춘 그림일 것이다. 여기에 오산은 칠언고시 74구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긴 호흡으로 용과 호랑이 그림 병풍에 제화시를 썼다는 것은 상당한 시적기교와 뛰어난 작가적 상상력이 발휘되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오산은 용과 호랑이가 갖춘 영험함과 기세, 그리고 그것을 그려낸 화가의 능력과 자부심까지도 잘 묘사하고 있다. 또한 용과 호랑이 움직임에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기이한 환상성까지 갖추고 있다. 이러한 면이 현저하게 드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위 부분은 13구~20구까지의 내용이다. 용의 신령스러운 모습과 호랑이의 강하고 빠른 움직임을 세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용 비늘의 예리함을 이빨과 발톱의 날카로움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용의 뿔을 세우자 꼬리에서 바람이 일고 입김을 불면 그것이 구름이 된다고 하고 있다. 화가가 그린 용 그림을 보면서 시인인 오산은 그림에 강한 생명력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과장된 표현으로 용과 호랑이의 움직임을 크고 강하게 묘사하고 있다. 오산은 호랑이의 눈을 ‘안여뢰(眼如雷)’라고 하여 마치 우레가 치는 듯 섬광의 빛을 발하는 눈빛으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기운생동함 등은 영물의 생명력과 기이한 환상성을 갖추게 하였다.

아래 부분은 70~74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오산은 짙진하게 그려진 용과 호랑이 그림 병풍에 서린 위용을 말하고 있다. 그의 이 작품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신령스런 용과 호랑이의 용맹함을 극대화하면서 영험한 기운을 담고 있다. 저절로 신령한 기운이 서려 있다고 보고 있다. 끝으로 장탄식 한 번에 산에는 바람이 불고, 바다에는 비가 내리는 기이한 현상을 시에 담고 있어서 시적 묘미에 환상성을 더하고 있다.

33) 차천로, 『五山集』 卷之一, <題韓石峯所藏龍虎障子歌> 중 13~20구, 70~74구.

威稜久見狐狸避	이글거린 위엄에 여우가 회피하고
神俊應將雕鷲同	번쩍이는 신체는 수리와 똑같았지.
老去收身如有意	늙어지자 몸 수습에 마음을 두었는지
閒來側翅若無功	한가하게 날개 접고 일없는 듯하였네.
鶴雲欲墮三竿日	세 장대 해 위에는 흰 구름이 짓눌렸고
鯨浪遙翻萬里風	만 리 바람결에 성난 파도 출렁이네.
我欲摩挲臨粉壁	만져 보고 싶어서 벽으로 다가가니
誰知突兀在層穹	후드득 창공으로 날아가 버렸네.
少陵爲爾留雄筆	소릉이 너를 위해 웅필을 남긴지라
對此長吟思不窮 ³⁴⁾	이를 대해 읊조리자 생각이 한없었지.

이 시는 오산이 벽에 그려진 늙은 송골매를 읊은 것이다. 칠언배율로 20구이다. 이 부분은 11~20구의 내용이다. 송골매의 위용과 생동감이 넘치는 장면을 포착한 모습이다. 매의 강렬한 눈빛에 주변의 여우는 그 위엄에 피하게 되고 가만히 있어서 번쩍이는 신령스러운 모습은 독수리의 분위기와 같음을 말하고 있다. 송골매는 순간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여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속도로 비행한다. 그 위용과 기세는 다른 동물들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오산이 본 그림 속의 송골매는 비행하거나 사냥 전 단계의 날카로움이 보이지는 않는다. 조급함이나 날래를 담지 않았다. 오랜 시간 비행과 사냥을 이어왔던 늙은 송골매의 모습이다. 그래서 날개를 접은 모습으로 일 없는 듯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송골매의 서식지는 주로 바위 절벽이나 해안가 등이다. 이 시에서도 성난 파도가 출렁이는 주변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송골매의 비행 속도와 놀라운 사냥 능력 등으로 위용을 드러내지만 한가한 듯한 모습에 시인은 그림 속에 개입한다. 가까이 다가가서 만져 보고 싶은 마음에 벽으로 다가가므로 시적 긴장감을 유도한다. 또한 찰나의 순간 그림 속의 송골매는 사람을 인지하는 듯 창공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다. 시인은 독자로 하여금 기이한 경험으로 유도하면서 환상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림 속의 송골매는 가까이 가서 볼수록 더욱 살아있는 듯 그 모습이 강렬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시적 기교는 그림의 평면적인 구성을 단순히 입체적인 강한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오산은 이러한 송골매의 순간적인 강한 생명력은

34) 차천로, 『五山集』 卷之四, <壁上畫老鷗> 중 11~20구.

바로 자신의 필적에 의해서 살아난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오산도 자신의 작품에 만족한 듯 샘솟는 시상을 즐기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君家好兄弟	그대 집안 형제간에 우애가 좋으니
大義重連枝	대의는 연한 가지 소중히 여기었지.
避地軍興際	전란이 일어날 땐 피란을 하였었고
全軀賊逼時	왜적이 핍박할 땐 신명을 보전했지.
季方嬰疾病	막내아우 바야흐로 질병에 걸렸으니
長肯忍分離	만형이 어찌 차마 떠나려고 하겠나.
冒刃何曾畏	칼날의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지라
彎弓獨自支	혼자서 활 쏘면서 버티어 냈었지.
只言誠意感	성의에 감동이 되었다고 말할 뿐
未信壯圖奇 ³⁵⁾	그림이 기특한 건 믿기지 않았네.

이 시는 조선 중기 문신으로 창석 이준(李峻, 1560~1635)의 <형제급난도(兄弟急難圖)>라는 그림에 대한 시이다. 오산이 쓴 24구의 오언배율 중 1~10구이다. <형제급난도>는 형제간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고 구해 주는 것을 그린 그림이다. 조선 중기의 회화는 초기에 형성된 화풍들의 계승하고 절충하면서도 변화시킨 후 그 시대 특유의 화풍을 형성하였다. 그러면서 사실성을 중시하는 실경산수화 및 기록화의 정착³⁶⁾ 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형제급난도> 같은 사실성이 드러난 기록화 그림들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제화시도 그 이전 시기보다 일상성이나 기록성을 드러낸 작품들이 있다. 오산도 형제간의 우애를 표한 그림을 대한 시를 통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서로를 아끼며 지켜주고자 했던 형제애를 묘사하였다.

‘대의(大義)’는 연이은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말은 형제간의 우애를 가장 중심에 두었다는 뜻이다. 전란 속에 절체절명의 피란을 함께 겪기도 하고 왜적의 핍박 속에 간신히 살아남았던 형제들이 겪었던 고통과 고난을 표현하고 있다. 오산은 이준 집안 형제간의 일들을 소상하게 그리고 있다. 막내아우가 질병에 걸렸었던 일과 만형이 곁에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끝내 동생을 지켜냈던 사

35) 차천로, 『五山先生續集』 卷之一, <題李蒼石 峻兄弟急難圖> 중 1~10구.

36) 김원용, 안휘준, 『한국미술의 역사』, 시공사, 2003, 453쪽.

연을 담고 있다. 형제간의 우애는 일상생활에서 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고통의 순간에도 그 우애를 절대적으로 지켜냈던 사실들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시로써 표현하였다는 점이 조선 중기 제화시의 또 하나의 변주 양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석주 권필의 <제군산이우도>³⁷⁾라는 제화시가 있다. 26구의 장편으로 조영과 김주 두 사람 간의 우정과 일화가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군산이우도>는 사실성, 일상성의 기록이 담긴 그림으로 조선 중기 임란 속에서 보존되었다. 현재도 『군산이우도첩』³⁸⁾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漢陽趙夫子	한양의 조 부자는
眼如九秋鷹	눈이 가을의 매와 같았네.
南州金秀才	남주의 김수재는
心貯玉壺水	마음에 옥호의 얼음을 담았네.
二君相去千餘里	두 사람은 서로 거리가 천여 리인데
二君氣味乃相似	두 사람의 의기가 서로 비슷했네.
浮遊湖海偶見之	호해에 떠돌다가 우연히 만나
相視一笑無復疑 ³⁹⁾	서로 보고 한 번 웃고는 다시 의심치 않았네.

이 부분은 석주가 쓴 <제군산이우도> 시 중 1~8구이다. 임란의 피란 과정에서 두 선비가 군산에서 우연히 만나 우정을 키우면서 영원히 기억하고자 남긴 것이다. 난리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지음의 교감이⁴⁰⁾ 담긴 <군산이우도> 그림에 대한 제화시이다. 이처럼 조

37) 권필, 『石洲別集』 卷之一, <題群山二友圖>, “漢陽趙夫子, 眼如九秋鷹. 南州金秀才, 心貯玉壺水. 二君相去千餘里, 二君氣味乃相似. 浮遊湖海偶見之, 相視一笑無復疑. 男兒得意有如此, 海可轉兮山可移. 百年情義比瓜葛, 死生貴賤焉足說. 白石清川松桂林, 晤言不暇煩招尋. 古來世事無不有, 却恐會合難可久. 故用寫作風流圖, 趙子丹青絕代手. 昂藏相對兩幅巾, 標格不是塵中人. 從此千秋更萬歲, 傳之仍雲期勿替. 我手撫圖三歎息, 管鮑古道今誰識. 君唯畫貌不畫心, 所以不可無我吟.”

38) 『군산이우도첩』으로 건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권필의 <제군산이우도> 관련 내용은 황수정, 「<군산이우도첩>의 제작 경위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115집, 한국언어문화회, 2020, 105~136쪽; 황수정, 「<제군산이우도>의 구조와 특징,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155~184쪽에서 상세하게 참고할 수 있다.

39) 권필, 『石洲別集』 卷之一, <題群山二友圖> 중, 1~8구.

40) 황수정, 「<제군산이우도>의 구조와 특징,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선 중기 제화시의 변주 양상으로 기이한 환상성을 묘사한 작품과 사실의 기록을 남기고자 일상성을 드러낸 작품들을 알 수 있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 중기 제화시 문화 향유와 변주를 고찰하였다. 조선 중기는 목릉성세로 역량이 뛰어난 시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한 시대이다. 동 시대 뛰어난 역량으로 서로 소통과 공감하면서 작시활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주로 간이 최립, 동악 이안눌, 오산 차천로, 서경 유근, 석주 권필 등의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소통과 공감, 제화시 문화 향유를 파악하였다. 이는 동시대 활동하는 문인으로서 서로의 역량을 인정하고 공감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들의 이러한 소통과 공감은 제화시 작시를 통해 그 문화를 함께 향유하면서 시화첩이라는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인의 소통과 제화시 문화 향유를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우선 시인들 간 문학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였던 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석주와 오산, 오산과 간이, 동악과 석주 등의 시로씨의 공감과 소통을 파악하였다. 이들은 주로 조선 중기 한시 흐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인물들이다. 격정의 시대를 함께 품어내면서 상대방의 입지와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조선 중기 제화시 문화 향유 중 큰 성과는 탄은 이정의 『삼청첩』에 관한 제화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삼청첩』 제화시에는 주로 탄은이 어려움 속에 그림을 완성하였던 바, 그리고 난과 매화, 대나무 그림의 뛰어난 고귀함을 노래하였다. 이는 당대 시인들의 품격 있는 제화시 문화 향유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선 중기 제화시의 변주를 고찰하였다. 조선 중기는 임진왜란이라는 시대적 변고가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쳤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 중기 제화시에도 체재와 변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전란을 경험한 조선 중기 문인 사대부가에서는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가전(家傳) 시화첩을 제작하려는 경

118쪽 참조; 황수정, 「〈군산이우도첩〉의 제작 경위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115집, 한국언어문학회, 2020, 170쪽 참조.

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억과 회상을 통해서 무너지고 폐허가 된 별서인 집터를 그림으로 복원하여 시화첩으로 만들려고 했던 『죽촌도첩』을 알 수 있었다. 『죽촌도첩』 제화시에서는 폐허가 된 집터 즉, 삶의 터전이 없어진 것에 대한 상실감과 다시 극복하고 상처받은 바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로써 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실과 회복의 변주 양상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로 장편의 시에서 나타난 기이한 환상성과 일상성이 드러난 시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물들의 움직임에 포착하여 시인의 역량으로 상상력을 더하여 기이한 환상성까지 갖추고 있었다. 더불어서 일상생활에서 중요시되는 기록화류 그림에 대한 제화시로써 사실적이면서도 일상성이 드러난 제화시로의 변주를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 중기 제화시 문화 향유에서는 화가와 시인의 협업을 통한 시화첩 제작 등으로 시대의 공감과 공동의 미적 문화로 향유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임란 후의 상흔에 대한 상실과 회복의 내용을 담은 제화시와 장편의 시로 환상성과 일상성을 드러낸 제화시로의 변주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권필, 『석주집』(한국문집총간 75).
- 유근, 『서경집』(한국문집총간 57).
- 윤두수, 『오음유고』(한국문집총간 41).
- 이안눌, 『동악집』(한국문집총간 78).
- 차천로, 『오산집』(한국문집총간 61).
- 최립, 『간이집』(한국문집총간 49).
-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고위공, 『문학과 미술의 만남』, 미술문화, 2004.
- 김원용, 안휘준, 『한국미술의 역사』, 시공사, 2003.
- 맹영일, 「간이 최립의 화론 연구」, 『東洋學』 第50輯,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1, 21~42쪽.
UCI : G704-000715.2011..50.001
- 백인산, 「간송미술관 소장 『삼청첩』의 역사성에 대한 고찰」, 『헤리티지:역사와과학』 46, 국립문화재연구원, 2013, 186~205쪽.
UCI : G704-SER000010438.2013.46.2.010
- 이남면, 「조선 중기 배울 창작에 대하여」, 『한국한문화연구』 제62집, 한국한문화회, 2016, 229~264쪽.
UCI : G704-000273.2016..62.003
- 李慈賢, 「탄은 이정의 회화세계 연구-『삼청첩』을 중심으로」, 수원대 석사학위논문, 2021.
- 조규희, 「조선시대의 산거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 홍만중, 안대회 역주, 『小華詩評』, 국학자료원, 1995.
- 황수정, 「〈제군산이우도〉의 구조와 특징」,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155~184쪽.
- _____, 「『군산이우도첩』의 제작 경위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115집, 한국언어문학회, 2020, 105~136쪽.
DOI : 10.21793/koreall.2020.115.105

| Abstract |

Enjoyment and Variation of The Jehwasi Culture In The Middle Joseon Period

Hwang, Soo-jeong
Chosun Univ. Lecturer.

This study speculated in enjoyment and variation of the Jehwasi culture in the middle Joseon Period. The Middle Joseon Period was the time when outstanding poets were very active in writing poetry.

The study investigated communication, sympathy and enjoyment of the Jehwasi culture in the following poets: Gani Choi Rip, Dongak Lee An-Nul, Osan Cha Cheon-Ro, Seogyong Yoo Geun and Seikju Gwon Pil.

The biggest result in the Jehwasi culture of the middle Joseon Period was Jehwasi activity in Taneun Lee Jeong's 『Samchongchob』. The 『Samchongchob』 Jehwasi depicted beautiful drawings of orchids, apricot blossoms, and bamboo trees as Taneun overcame trauma of the Imjinweran through drawing. It was a true character of the poets who enjoyed the Jehwasi culture in the middle Joseon Period.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variation of Jehwasi in the middle Joseon Period.

In the Confucian scholars' families who were suffered from the Imjinweran in the middle Joseon Period, a trend to make an album of painting and poetry appeared.

The site of a rural cottage which was destroyed after the war was restored through drawing and was made to an album of painting and poetry, which was recorded in 『Jukchondocho』. The 『Jukchondocho』 Jehwasi depicted feeling lost that his house, that is, the site of the cottage, was gone and the hope to restore from the trauma. Thus, this study identified variation of loss and restoration in contents of Jehwasi and long poetry where quaint fantasy and everydayness were shown. In addition, this study looked at the variation of Jehwasi as realistic and common poetry with drawing recording everyday life.

Key words : Middle Joseon Period, Jehwasi, Enjoyment, Variation,
Samchongchob, Jukchondocho

투고일 : 2025년 2월 20일 심사기간 : 2월 20일 - 2월 26일 게재확정일 : 2월 28일

www.kci.go.kr